

理想의 人間性 形成 위한 陰陽合德論

安鍾沄*

目 次

머리말	
緒 論	
I. 陰과 陽의 總體的 理解	2. 遺傳的 人性觀
II. 陰陽의 順理와 逆理論	3. 正陰 正陽의 夫婦生活論
本 論	II. 後天의 人性 形成論
I. 先天의 人性 形成論	1. 性 自由論의 人性觀
1. 古典의 先天 人性觀	2. 父性愛 母性愛의 調和論
	結 論

머 리 말

人間이 萬物 가운데 最貴한 존재라 자처할 여러 조건이 있으나 物心 양면에 걸쳐 가장 대표적인 것은 文化生活을 하는 文化的 動物이라는 사실에 異議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人類로 태어났다는 점에서는 모두 公平하게 尊嚴하다는 형식적 人類平等論도 엄밀하게 검토할 때 관찰 부족한 誤判이며, 實은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文化生活을 하고 있는가로써 人間된 價値의 높고 낮음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요, 이제 표준이 될 文化를 基準으로 全人類를 관망한다면 아마

*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도 人類의 數만큼이나 階級的 존재가 人間이라는 점에서 가장 不平等한 것이 사실이다.

文化에는 크게 物質 精神文化로 二分되어, 어느 한 편에 치우치면 半偏文化人이 되어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의 失格文化人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拜金指向的 經濟第一主義로 치닫는 現代의 歷史 추세를 크게 닦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黃金을 돌(石)같이 보라」는 일부 宗教人이나 道德家의 교훈도 옳은 가르침이라 할 수 없다.

人生은 肉體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正直하고 근면 성실하게 활동하여 풍요로운 物質文化生活을 하는 것 人生의 高級化作用이며, 精密한 腦機能을 활용하여 깊고 높고 넓은 精神世界를 개척해서 참되고 착하며 아름답고 거룩하여 위대한 人間이 되는 것, 이것이 人間된 特權을 발휘함이다.

이러한 올바른 人生觀과 價値觀을 파악하지 못 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半偏文化人들이 歷史의 主導權을 장악, 歷史를 誤導하여 왔으며 대중들은 그에 便乘 표류하는 것이 人類가 살아 온 자취이다.

物慾에 눈을 가려 物質價値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動物的 文化人이라 한다면 精神만을 숭상하는 精神價値 至上主義者들은 幻想文化人이기에 모두 人生을 바르게 살지 못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불완전한 人生들을 참되게 인도하는 敎育者나 宗教人들은 먼저 자신부터 人生을 옳게 알고 示範的 實踐生活을 해야 한다.

그러나 一名 産業情報化時代라 일컬어지는 現代의 敎育 추세는 經濟戰爭 場化된 국제사회에서 앞서기 위한 경쟁력을 強化하기에 박차를 加하여 眞正한 人間을 양성하려는 人間敎育 따위는 관심권에서 사라져 가는 경향이다. 그 한 증거로 敎育部는 今年(1997년) 2월 3일 모든 大學敎育에서 必須科目 제도를 폐지하여 大學生들의 受講 선택의 폭을 완전 개방한다고 발표하였다. 大學은 곧 大人을 양성하는 최고학부이므로 各 專攻學科에 필요한 전공과목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大人이 되게 하려는 人間敎育은 학생들의 선택의 여지없이 꼭 必須로 이수시켜야 한다. 그것은 마치 어린이에게는 음식을 싫다 해도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식사시간을 맞추어 먹여야 하고, 病든 자에게는 약을 마다해도 치료를 위해서 투약해야 하듯, 人間으로 미숙한

학생들에게는 人間 成長 教育만은 선택의 自由가 있을 수 없다. 父母로부터 꾸중을 들어서 좋아 할 子女 없고, 말로 타일러 듣지 않는 자식 회차리로 때려 달라는 子女 이 세상에 하나 없지만, 꾸짖고 매질해서 人間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정에서의 基礎人間教育이다.

人間은 누구나 不完全者로 태어나 不完全자로 一生을 끝내는 존재이기에, 出生 初期 동물들과 구별할 特혜 조건 없이 태어나 教育으로 高等動物化 되어 가는 영원한 과도적 존재로서 끝없는 人間高級化 단계로의 精進은 바로 人間教育에 비례한다. 그래서 人生은 百年이상을 살아도 教育을 떠날 수 없는 終身 教育的 動物이다.

教育 중에도 衣食住생활을 풍족히 하려는 경제 教育이나 물질과학과 같은 從屬價値教育은 아무리 長久하게 하여도 人間性을 갈고 빛내는 人間本質教育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教育은 目的과 指標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教育者는 被教育者를 그 目的 指標를 향하여 이끌고 갈 책임이 있으며 目的地에 탈선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選好의 自由를 보장해야 한다. 教育 目的마저 철폐하고 被教育者의 자유에 방임한다면 이미 ‘教育’이라는 참뜻을 포기함이 된다. 운전자 없이 車가 走行하는 격이다.

金泳三政府가 출범하면서 ‘教育改革委員會’를 조직하여 크게 기대하였으나 末期에 와서 自由化 開放化의 물결 따라 최고의 教育기관 大學에서 教授本位가 아닌 學生本位 教育體制로 逆轉, 教育을 베푸는 스승이 教育을 받겠다는 학생에게 평가받고 이끌려 간다면 客車가 機關車의 앞자리에서 끌고 가는 격이다.

民主主義라는 정치제도는 과거 被治者 국민이 나라의 主人이요 王의 위치로 逆轉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 발전을 하였으나, 아무리 教育이 民主化된다 하여도 主從의 原則은 절대로 역전될 수 없는 까닭은 客車가 機關車을 이끌고 갈 수 없는 事理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教授는 대학과 대학원 碩士 博士과정을 이수한 최고급 지성인들이요 대학생은 대학을 몰라서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찾아 온 학문의 初入者의 신분인데 그들의 의사에 따라 大學教育이 左右된다면 앞 서 예를 든 운전자 없이

走行하는 車 또는 無資格 운전자가 운전하는 車와 같다 아니 할 수 없다. 이것은 教育改革 아닌 教育危機 조성이 아닐 수 없다.

一國의 百年大計로서의 教育이 正常化되어야 바른 政治가 베풀어지고 역사의 正道가 펼쳐진다. 教育의 正常化는 正規 教育기관으로서의 初等, 中等, 高等, 大學教育에서, 肉體가 건강하게 성장하듯, 人間性이 참되고 착하며 바르게 성장하도록 人間教育의 核心인 倫理道德教育을 主體教育으로 철저히 期할 것이며 기타 道具教育 從屬教育이 뒤 따르야 한다.

아울러 최고의 교육자인 大學教授는 각자 專攻하는 학식에 첨단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人間性이 고매한 高位人格者로 모범을 보여야 大人을 길러 낼 교육자의 자질을 갖추어 될 것이다.

人間은 終身토록 教育을 받아야 할 教育的 動物이라 하였거니와, 이상 열거한 正規 教育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後續教育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生活하는 社會現場이 넓은 의미의 學校요 教育의 場이다. 共生하는 人間群이 모두 같은 人生學生 同窓生이며 스승도 될 수 있고 제자도 될 수 있다. 앞 선 사람에게서는 이끌림을 받고, 뒤 진 사람에게서는 자신을 반성하는 거울로 삼으며 善導할 책임을 다져야 한다.

이처럼 公開된 教育의 廣場으로서의 社會속에서 正規 학교교육 못지 않게 人間을 끝없이 성숙시켜 주고 善導하는 教育集團이 있으니 곧 宗教가 그것이다.

宗教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이상, 믿음은 自由의 영역에 속하여, 믿을 自由와 믿지 않을 自由가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宗教的 人間教育을 받을 수는 없다.

人生은 時間的으로 有限하며 空間的으로 制約받고 能力面에서 不完全하여, 有限者로서 無限에 대한 所望, 制約者로서 無制限에 대한 소망, 不完全者로서 完全에 대한 소망을 달성코자 宗教人이 되는바, 信仰生活를 통하여 精神的으로 그것을 體驗함으로써 無宗教人 이상 삶의 質을 높이고 世界를 확대하여 간다.

物質的 富貴 못지 않게 精神的 偉人됨이어서 高級文化人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모든 宗敎人이 高級文化人이라 할 수 없는 것은 眞實을 믿는가 거짓을 믿는가에 따라 文化的 宗敎人인가 反文化的 迷信者인가 極과 極의 대조적 삶의 길을 택함이 된다. 여기 宗敎人 되기에 앞서 慎重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所以가 있다. 거짓에 현혹되고 기만당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無宗敎人만도 못한 惑世誣民이 되어 本人의 不幸은 물론 그에 포섭된 많은 사람까지 不幸을 전파하게 된다.

宗敎人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指導的 위치에 있는 思想家 學者들이 연구한 지식도 眞理에 어긋난 사상과 지식을 전파하면 人類를 誤導하여 果滅로 이끄는 경우가 허다하듯, 宗敎人 知性人이 되고자 하면 眞理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眞理에 어두우면 「내가 속고 남을 속여」 거짓된 人生을 虛送하게 되니 이 보다 큰 生의 浪費와 罪惡은 없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라면 文化라고 하는 修飾없이 自然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自然界의 삼라만상의 生成만도 못 하다.

文化는 人類가 역사 이래 개발한 業績인 것이며, 不完全한 人生들에 의하여 계승되어 오는 역사이므로 眞理의 天國으로 直行하지 못 하고 進步와 後退의 우여곡절을 거듭하는 만큼 그 업적으로서의 文化內容도 모두 참되고 가치 있다고 할 수 없다. 宗敎文化도 그 예외일 수 없다.

2천년 또는 그 이상 전승되어 오는 既成宗敎들도 그 信者들이 생각하는 만큼 完全한 眞理에 바탕을 하였다고 보기에선 문제의 소지가 너무나 많다.

그 공통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첫째 現實 否定 來世指向的이라는 점이요, 둘째 宇宙의 영원한 法則 또는 宇宙 全體를 창조하였다고 하는 造物主, 唯一絕對者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宗敎指導者들은 그 造物主의 法則을 스스로 이탈하는 禁慾的 宗敎生活, 셋째 宗敎는 目的 人間을 高級化 價値化하려는 문화의 한 手段인 것을 宗敎를 目的視하는 主客顛倒의 宗敎觀은 眞正으로 人間을 값지게 하는 宗敎라 할 수 없다.

이러한 既成宗敎에 비하여 後發 宗敎이기는 하나 東方 이 땅 이 민족에 의하여 創導된 姜飴山의 大巡眞理와 이에 근거하여 天尊 地尊보다 人尊時代 개막을 도파하고, 그 실천 위한 宗旨 제 一條로 「陰陽合德」을 내세워 宇宙 人生의 영원한 生成法則과 平和의 法則을 제시하였음은 불변의 理法이요 眞

理로써 이 眞理를 確信하고 실천공행할 때 개인을 개인대로 人類 모두 相生 共榮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筆者는 人生을 東西洋 전통적 관념처럼 生來的으로 尊嚴性を 갖추고 태어 났다거나 人性은 先天的으로 善良하다는 性善說 등에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 며, 生物學的으로 動物科에 속해 있는 이상 動物등과 동등한 자격의 소유 자로서 人體 구조상 腦機能의 精密性を 이용하여 文化를 개발 文化生活를 한다는 점에서 優越性を 각자 창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不完全한 人生이 기에 그 업적으로서의 文化와 活用方式도 不合理的한 바가 많고 이것을 바로 잡아 最善의 人間 삶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 教育인바, 오늘날 公教育으로서 의 正規 各급 學校教育은 教育 本然의 正道를 이탈하여 人間教育을 소외하 고 道具와 手段價値教育에 치중함을 지적하였다. 非正規 教育기관이기는 하나 社會教育의 역할을 하는 各 宗教團體가 平生教育의 몫을 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2천년 그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既成宗教들도 人間 을 善導하고 社會淨化事業에 큰 몫을 한다고 하지만 重大한 문제점은 「人間 을 위한 宗教」가 아니라 「宗教를 위한 人間」으로 人生觀 宗教觀이 主客顛倒 된 信仰生活로 기울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既成宗教의 이러한 문제점을 改革하여 人尊民主化時代가 요구하는 새로운 正統文化宗教가 창도되어야 하는바, 곧 宇宙의 構造原理인 陰陽合德으로 天·地·人이 和合 相生할 처방을 제시한 大巡眞理의 宗教敎理가 그것이다.

本論文은 현대 教育의 잘못된 흐름과 기성 종교의 결함을 補完할 근본적 방법으로 人尊時代의 主體인 人間 개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尊嚴한 人間이 될 수 있는가 人間性 改造문제를 陰陽合德의 原理에 따라 밝혀 보기로 한다.

緒 論

I. 陰과 陽의 總體的 理解

여기에 무엇이 하나 있다고 하면 物體가 크고 작고간에 單獨으로 존재하지 않고 兩面性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實在하지 않는 幻想이나 虛像이어서 있는 것같이 생각된 것이라면 錯覺에 불과하니 ‘거짓된 것’ 이므로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았다고 하여도 ‘眞’을 안 것이 아니라 ‘僞’를 안 것이므로 알지 않은 것만 못 하다.

人類는 知能이 발달하였으므로 知的 欲求가 왕성하여 食慾 性慾 못지 않게 알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개발한 업적이 自然科學 社會科學 人文科學 등 수 많은 學問들이고, 人間이 경험으로 體驗할 수 없는 무한히 넓고 큰 세계까지 알고자 하는 所望 때문에 宗教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 自然 社會 人文科學과 같은 經驗界의 事實을 다루는 學問과 경험을 초월한 無限大의 世界까지 알고자 하는 宗教의 境界가 드러나는 바, 知的 高等動物로서의 人生이라면 참(眞)을 바탕으로 超經驗世界까지 알고자 함이 所望일 것이요 거짓(僞)의 기초 위에서 초경험세계까지 알았다고 한다면 虛僞의 無限大일 뿐이다.

그러므로 學問 즉 科學의 목표는 眞理 탐구에 있고 宗教의 목표는 거룩한 (聖) 人生이 되고자 한다고 하나 學問의 세계는 眞과 僞가 證據를 통하여 밝혀지는 반면, 宗教는 有限한 人生으로 無限의 세계까지 證明할 수 없으려니와 全知全能하지 못 하기에 永遠한 眞理 與否는 論할 能力이 없어 眞理이기를 바라는 所望은 곧 ‘믿음’ (信)으로 굳어진다.

各 宗教가 다양하게 自生하는 것도 宗派마다 영원한 眞理이기를 바라는 믿음에 異議 異見이 있어 統一된 眞理를 찾아내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 점 宗教는 ‘學의 學’ ‘學 中 學’ (Science of Science) 이라고 불리는 哲學 즉 萬學의 母科學이라는 哲學의 토대 위에 超經驗的 眞理를 확대하여야 할 것을 거듭 다짐하게 된다.

宗團 大巡眞理會의 道主 趙鼎山의 ‘覺道文’은 아래와 같이 시작되었다는데 큰

뜻이 있다.

『夫聖人之經典不求文章之色彩而求其眞理眞人之心求其實而不求外飾求其物之事理則求其天然而不求造作也.……』¹⁾

의역하면,

『무릇 聖人の 가르침이 기록된 經典을 배우는 것은 美辭麗句를 익히고자 함이 아니라 眞理와 眞人の 그 마음을 본받자는 것이고 實質을 숭상하자는 것이며, 有識한 체 하는 걸치레 知性人이 되자는 것이 아니다. 事物의 理致를 깨닫게 되면 自然의 攝理를 깨닫게 되며 사람마다 造作한 偏見을 멀리 하게 된다.』

고 하였다.

姜飪山이 天地公事로 大巡哲學을 創導하자 趙鼎山은 그 모두를 眞理로서 깨달은바, 眞理는 人間마다 造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太初 이래 永劫의 미래까지 지속될 自然의 萬物 속에 內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眞理를 人類가 실천하여 聖人 眞人이 되고자 한다면 첫째로 ‘陰陽合德’ 해야 한다고 깨달아서 宗旨 第一條로 앞세웠던 것이다.

大巡哲學에서 導出된 ‘陰陽合德’이 宇宙의 영원한 眞理인가, 그 理法을 따르면 眞人됨의 길(道)에 들어서게 되는가 哲學的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東洋哲學의 귀중한 서적 가운데 周易이 차지하는 위치가 至大하다 함은 公認된 사실이다. 周易은 大自然으로서의 宇宙와 小宇宙로서의 人生을 一貫하는 眞理를 밝힌 大哲學이며 大科學이다.

‘易’이라는 字는 主된 뜻이 ‘變化’여서 ‘바꿀 역’ ‘바뀔 역’이요 다음 ‘쉬울 이’ ‘간략할 이’ ‘다스릴 이’ 의 뜻도 있음을 보아 周易이나 易學은 ‘變化의 法則’을 탐구하는 學問인바, 大宇宙와 人生界의 무궁무진한 變化가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이 어려울 것 같지만 變化하는 가운데 變치 않는 法則을 알고나면 不可解하고 豫測不許한 듯한 宇宙 人生의 영원한 未來事도 쉬웁게 豫察할 수 있다는 것이 易學이라 하겠다.

周易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1) 典經 : 教運 제2장 33절 202面

『天地의 큰 德을 생이라 한다.』²⁾

道德은 人間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最大의 道德은 宇宙의 德이요 그것은 끝없는 ‘生成 作用’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어떻게 해서 生成이 이루어지는가?

『한 陰과 한 陽이 있으니 이것을 道라 이르고, 이 陰陽의 道를 계승하는 者 착하다(善) 하며, 陰陽으로 이루어진(形成) 것을 性이라 한다.』³⁾

『天地의 氣가 왕성하여 만물이 순박하고 풍요로우며, 男女의 精氣가 합하여 萬生命이 태어난다.』⁴⁾

天地가 固定不變하다면 거기에서 어떤 의미도 파악할 수 없겠으나 잠시도 쉬임없이 變化가 不斷하고 그 變化가 消滅이라면 宇宙는 形體도 없이 無로 끝날 것이 것만 生成이기에 大自然은 시간을 초월해서 의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 生成作用하는 宇宙의 뜻은 大善이라 아니 할 수 없고 大善이기에 大德인 것이다. 이러한 大善을 베푸는 원인을 살필 때 宇宙라는 最大 存在의 원천적 構造方式이 一陰과 一陽으로 兩立되었으나 그 兩立이 對立으로 對決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워 相對를 기다리는 待對的 關係여서 드디어 結合하여 새로운 創造를 하는 變化의 연속이다.

宇宙內 삼라만상의 個體 하나 하나가 이렇게 탄생되어 그 生成方式으로 새로운 二世 三世등 끝없는 새 모습의 存在者로 變化되어 간다는 것이 宇宙 不變의 法則인 一陰 一陽의 道요 이것이 易哲學의 基本 原理이다.

이것이 잘못된 관찰에서 오는 誤判인가, 아니면 觀念論的 상이나 推理여서 事實의 세계와 합치되지 않는가? 그래서 현실에서도 맞지 않는 이론이 어떻게 먼 未來까지 변치 않는 法則일 수 있겠는가 反論도 예상된다.

2) 『天地之大德曰生』(繫辭下傳 第一章)

3)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繫辭上 第五章)

4)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繫辭下 第五章)

그래서 筆者는 緒論 첫 머리에 하나의 事物이 존재하자면 獨存은 있을 수 없고 兩面性을 가지고 존재하며, 그렇지 않는 존재는 存在者일 수 없는 幻想이나 虛像이라 하여, 學者나 宗教人들은 아무리 보이지 않는 精神 世界를 탐구한다 하여도 事實의 세계와 합치하지 않거나 전연 무관한 이론등 觀念론을 전파하여 人類를 현혹되게 하거나 迷路로 誤導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제 한 事物이나 存在者의 一體 兩面性을 실예로 든다면 「前面과 後面」, 「右側과 左側」, 「內部와 外部」, 「高位와 下位」, 「表面과 裏面」, 貴位(頭腦)와 賤位(下門) 등은 한 사물이나 존재가 空間上에 자리잡고 있는 存在構造樣式이다. 또 「動과 靜」, 「能動과 受動」은 時間의 범주에서 본 存在樣相이라 하겠고, 「主體와 客體」, 「積極性과 消極性」, 「剛과 柔」, 「冷과 溫」 등은 質的 存在樣相이요, 「大와 小」, 「單과 多」 등은 量的 存在樣相이다.

이것이 宇宙內 全事物의 存在하는 모습이므로 이 樣式을 벗어난 事物은 있을 수 없고 즉 없다는 증거이다.

이것들은 모두 事物의 存在樣式이라 치고 精神的 存在의 경우는 이 양식에 제약받지 않는다 하여 精神 自體로서 獨者的으로 孤立할 수 있다거나 事物의 세계와 별개로 獨存무대가 끝없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그 精神이 곧 幻想 妄想이 되는 것이다. 精神의 對位 즉 相對概念은 物質 혹은 肉體인 것이다. 따라서 西洋哲學의 唯物論이나 唯心論은 宇宙 實相의 半偏 認識 즉 偏見이요 거기에서 온전한 眞理는 파악되지 않는다.

人生의 예를 보아도 肉體 가운데 上位部 頭腦를 떠나서 어떻게 정신 활동이 가능하며, 정신이 떠난 肉體는 이미 生命이 떠난 시체나 다름없다. 精神과 肉體가 건전하게 合一되어야 正常的인 한 人生이 된다.

이와 같이 宇宙內 全存在者의 存在樣式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質的으로 量的으로 兩面性으로 구성된 事實을 周易에서는 「陰·陽」으로 파악하였다.

陰陽은 待對의 原理가 작용하여 結合하지 않을 수 없고 結合하면 새 生命이 탄생되어 宇宙는 이렇게 끝없이 生成變化한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옳았고 현재도 옳고 영원한 미래까지 지속할 옳은 法則이므로 眞理이다.

陰과 陽이 待對의 原理에 따라 相合함을 「陰陽合德」이라 이르고 人生도 이 宇宙의 大德이요 理法인 陰陽合德을 실천하면 「繼之者善也」(周易)의 敎訓대로 善良하고 幸福하게 살 수 있다는 大巡眞理會의 宗旨는 全人類에게 두루 적용되는 統一된 眞理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西洋哲學의 경우 古수를 일관하는 西洋 基本思想이라 할 辨證法의 始祖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BC 541~475)는 宇宙의 모든 「萬物은 流轉한다」고 파악 變化流轉을 宇宙의 實相이라고 한 점은 周易의 견해와 같으나, 왜 流轉하는가에 관해서 「투쟁은 萬物의 아버지요, 王이다。」라하여, 萬物의 존재양상을 「對立」에서 찾았고 對立은 相反者이기에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영원한 敵手요, 투쟁을 통해서 生成 發展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生成觀이 2천 수 백년간 계승되면서 헤에겔(Hegel 1770~1831)에 의하여 正·反·合의 論理, 辨證法이 완성되고 西歐人의 公式的 思考方式化되었으며 西洋思想史를 승배하는 일부 東洋知性人들까지 意識化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公正하게 평가하여 보아도 兩立된 雙方이 陰陽의 關係처럼 서로 필요로 하는 調和의 相對로 보아야 하는가, 異質者라하여 서로 타도(打倒)의 敵對者로 보느냐에 따라 영원한 平和냐 戰爭이냐로 歷史의 進路를 달리하게 됨을 안다. 이 점에 관해서는 筆者가 제1집 「世界化 時代와 相生倫理의 要請」에서 民主主義를 투쟁으로 쟁취하려는 일부 大學生 敎員勞組와 직장 勞組員들의 辨證法的 意識구조를 크게 비판한 바 있어 더 이상의 부연은 피하기로 한다.

天·地·人 三界 宇宙 全體를 일관하는 理法인 道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은 二律背反과 같은 敵對的 原理가 지배하는가, 二律待對의 陰陽調和의 原理가 지배하는가를 巨視世界와 微視世界의 事實을 가지고 論證하기로 한다.

그 證明은 「易」字가 말하여 주듯, 宇宙內 모든 天體들은 끝없이 運動과 變化(易 : 바꿀 역)하여 運動法則이 있는가 없는가 알 길이 없으나 쉬웁게 (易 : 쉬울 이) 「있다」고 確答을 내릴 수 있는 것은 人間이 알고 있는 몇 千萬億兆라는 數의 개념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天體들이 각자 자기 軌道

를 주호의 오차도 없이 運行하며 천체 충돌이라는 宇宙大亂이 없다는 사실은 宇宙에 大秩序 즉 宇宙法則이 있다는 증거이다.

다음 충돌하지 않고 千秋萬古이래 宇宙의 平和를 지속한다는 사실은 天體間에 排他的 原理가 지배하지 않고 待對의 原理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과 무엇이 서로 의지하며 기다리는 待對의 相對가 되는가?

天體(별들)의 軌道는 直線이 아니라 圓인 만큼, 圓에는 中心點이 있기 마련이고 中心點的 天體와 軌道를 運行하는 天體는 磁氣의 磁場처럼 遠心作用과 求心作用이라는 引力으로 一定 距離를 유지하면서 軌道를 自轉 公轉의 運動으로 精密하게 運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中心的 天體 이르면 太陽은 陽天體가 되고 軌道를 運行하는 惑星 이르면 地球는 陰天體가 된다.

이와 같이 巨視世界의 萬 天體의 運動 變化도 陰陽合德 陰陽調和의 原理로 이루어지며 排他가 아닌 相生 調和로 宇宙의 平和가 실현되고 있다.

微視世界를 알아보면 물질로서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最小 微粒子인 原子가 하나 있다고 치자.

이론상으로 따지면 分割 不可의 最小 單位物質이기에 單一 微粒子인 原子는 單獨 存在같으나 原子도 「內外」라는 物質存在方式으로 構成되어 있어서, 宇宙 天體 運行과 같이 中心 天體에 해당하는 자리에 「陽性子」가 있고, 惑星이 運行하는 軌道의 자리에 陰性子에 해당하는 「電子」가 陽性子를 中心으로 電子軌道를 運行하여 축소된 小宇宙 몫을 嚴正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微視世界인 小宇宙와 巨視世界인 大宇宙도 한결같이 陰陽 調和 合德의 原理로 構成되고 運行되며 生成하고 있음이, 첨단과학과 우주과학 天文學으로 立証되고 있음을 볼 때 易哲學의 교훈과 陰陽合德의 宗旨는 不變의 眞理로서 거듭 確認된다.

現代文明의 原動力이라 할 電氣工業의 偉力도 陰陽合德의 物理的 應用에 지나지 않는다. 陰電과 陽電이 결합함으로써 어둠이 밝아지고, 百 · 千 · 萬 馬力 그 이상의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각종 物質文化의 生産力을 增進하며, 酷寒을 따뜻하게, 暴暑를 서늘하게, 地上을 天國 부럽지 않게 만드는 역할 모두가 電氣의 陰陽合德의 결과이다.

이것은 可視的 物理世界의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면 그 對位인 精神世界의 原理도 이 法則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크고 작은 物理世界는 陽이라 한다면 物性과 人性이라는 精神世界는 陰이 될 것이므로 人生에 있어서 物質과 精神生活 또한 陰陽의 調和를 따르느냐 不和를 따르느냐의 새로운 문제가 다음에 제기된다.

II. 陰陽의 順理와 逆理論

宇宙內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物質이건 精神이건 陰과 陽 二元의 氣와 原理로 구성되고 존재하며 生成發展한다는 사실은 東洋의 古典 易哲學이나 現代 첨단과학으로도 明白히 立証된 不變의 眞理임을 볼 때 人類의 歷史는 이것을 順理的으로 따랐느냐 逆理的으로 不容했느냐 再評價할 필요를 느낀다.

그 間 東洋은 정신문화에 치중하고 西洋은 물질 문화에 치중하여 왔다는 사실과 古代는 물질적으로 未開時代였다면 現代는 經濟문제와 自然科學 至上主義로 獨走하여 국제사회는 地球村 人類文化의 變則的 不條理相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東西洋을 막론하고 富國과 貧國, 한 國家內에서도 貧富의 계층에 따라 物質 精神文化生活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은 陰陽合德이라는 生成法則에 符合되지 못 했다고 보아야 할 일이다.

10년 前이 1세기 前처럼 急變하는 現代文化의 발전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向한 疾走일까, 安堵感보다는 不安을 금할 수 없음이 미래를 내다보는 知性 人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나라마다 自國의 物理的 利益 추구에 血眼이 되어 對立이 날카롭고, 開發이라는 美名으로 自然을 잔인하게 파괴하며 有限한 부존자원을 아낌없이 발 굴하여 100년 후에 태어날 後孫들은 무엇으로 살아 갈 것인가 크게 우려되는 오늘의 歷史 추세에 陰陽合德의 교훈은 人類 存亡의 준엄한 警告로 받아 드려야 할 것이다.

이제 陰陽의 哲學은 調和로써 즉 合德으로 끝없는 生成 發展을 期約하며, 不容 對立으로 相剋 消滅을 豫告함을 알려주고, 陰陽의 調和 合德을 順理라하며 順理의 결과는 生成 發展이요, 不容 對立은 逆理라하며 그 결과는 相剋 消滅임이 宇宙 創始 이래의 法則이라고 깨우쳐 준다.

陰陽의 調和 合德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아야 할 차례에 왔다.

그것은 陰이나 陽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음을 말하며 公正한 和合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요 이것을 正陰 正陽의 道를 지킴이라 하겠다. 이 原理를 東洋 古典 中庸을 통해서 알아본다.

『하늘이 命한 것 이것을 性이라 하고, 性을 따르는 것 이것을 道라 이르며, 道를 닦는 것 이것을 教라고 한다.』⁵⁾

하늘이 命한 것이라 함은 「宇宙의 生成法則」이라는 뜻으로서 人生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宇宙의 陰陽法則에 의해서 탄생된 이상 人性 속에는 陰陽의 原理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 性을 따른다 함은 陰性과 陽性을 公正하게 保全한다는 것이고, 道를 닦는다 함은 보이지 않는 精神으로서의 性이기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칠 可能性이 많으므로 中和의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함을 말하며, 그 노력의 과정을 教育이라고 하였다.

이 점 朱子의 註를 참고하기로 한다.

『命은 令과 같고, 性은 곧 理이다.

하늘은 陰陽五行으로써 萬物을 化生하며 氣로써 形體를 이루고, 理는 역시 (形體 속에) 갖추게 된다. ……」⁶⁾

‘命’을 ‘令’이라 한 것은 宇宙內에 태어났다는 事實 自體를 各者 自由意思와 관계없이 天意에 따라 즉 天命을 受令 하고 出生하였음을 強調함이다.

‘性即理’라 함은 出生된 者는 出生 法則인 陰陽의 原理를 갖췄다는 것을

5)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中庸 第一章)

6) 『命猶令也. 性即理也.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中庸 第一章 : 朱子註)

깨우치는 것이다.

‘氣以形成’ 이라 함은 生命體로 出生되자면 肉體라는 物質元素인 金木水火土 五行의 氣로 形成됨을 말하며, 肉體 속에는 陰陽의 原理가 保全되었으므로 ‘理亦賦焉’이라 하였다. 이어서

『기뻐하고 (喜), 노여워하며 (怒), 슬퍼하고 (哀), 즐거워함 (樂)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中’이라 이르고 나타나서 모두 節度에 맞는 것을 ‘和’라 이른다. ‘中’은 天下의 大本이요 ‘和’는 天下의 達道이다.』⁷⁾

人生이 태어날 때 基本 感情으로 喜·怒·哀·樂을 갖추는바, 이것이 外部에 드러나지 않고 保全된 상태를 ‘中’이라 이르고, 이것이 나타나되 節度에 맞으면 ‘和’라 하며 中은 天下의 大本, 和는 天下의 達道라 함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喜怒와 哀樂도 실은 感情의 陰陽이라 볼 수 있다. 喜는 부드러운 感情(柔情)에 근거하였으므로 陰情에 속하고, 怒는 強直한 忿怒心을 뜻하므로 剛情이어서 陽情이요, 哀는 슬픈 情 슬픔 끝에는 부드러운 눈물이 흐르니 陰情이 될 것이며, 樂은 즐거움이 快活하게 外部에 發散하므로 陽情이라 하겠다.

이처럼 心情 精神世界에도 心理 分析할 때 陰陽의 原理가 內在하였음을 알게 되고, 이 陰陽心情이 때와 장소에 따라 適中을 期하여 발산해야 感情 調和의 均衡을 이루므로 ‘和’라 하였고 和는 마음의 平和이기에 天下 萬人이 모두 간직하고 실현해야 할 平和의 大道 (達道)라 하였다.

이에 대한 朱子の 註를 참고해 본다. 여기 朱子の 性理學의 根本이 잠재하고 始發點이라 할 수 있기에 뜻이 깊다.

『喜怒哀樂은 情이요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性이라 한다.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中이라 이르고, 情이 發하여 절도에 맞는 상태를 바른 情이라 한다. 對立되고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和라 이른다. 大本은 天賦的인 基本性品이며 天下의 理요 모두가 이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므로 道의 本體가 된다.

7)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中也者天下之大本. 和也者天下之達道也.』 (中庸 第一章)

達道라 함은 性의 순환을 이르며 天下 古今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으므로 道의 作用이다.

道의 體와 用은 性情의 德을 말하며 이것으로써 道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⁸⁾

여기에 '性'과 '理'가 나오고 道의 '體'와 道의 '用'이 나온다. 앞에서 朱子は '性卽理'라 하였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喜怒哀樂이라는 基本 四情의 未發狀態가 '性'이며 適時 適所에서 感情이 適中하게 즉 合理的으로 發現함을 '和'라 하였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心情을 合理的으로 發하는 것이 人類平和의 大道라는 말이다. 또 '道의 體와 用' 說은 人生으로 태어나면 平和를 실현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인 本體 四情이 있고 時間과 空間의 변화에 따라 상황의 요구에 適切히 作用할 能力이 있음을 말한다.

筆者는 이 모두를 精神世界의 陰陽의 原理로 보았으며, 朱子の '性卽理'나 '道의 體·用' 說이 可能한 根源을 陰과 陽이 調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陰陽의 調和가 잘 이루어진 상태를 陰陽合德이라 이르고, 그것을 中庸이나 朱子說로 밝히면 心之本體로서의 性情이 時·空間 속에서 合理的으로 適中하게 作用할 때 平和가 실현된다고 한다.

이 모두가 陰陽이 順理的으로 和合하는 合德의 경우를 말한 것이요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感情이 中道를 잃고 陽으로 치우칠 때 激情이라 이르고, 陰으로 치우칠 때 意氣消沈에 빠졌다고 한다.

激情은 身體에 火氣를 상승시켜 血壓을 높이고 腦血管을 파열시켜 자신의 生命을 위태롭게 하고, 他者에게는 暴動을 일으킨다.

意氣消沈은 意志 意慾이라는 精神力이 극도로 쇠약해져 萬事に 뜻을 잃어 生命活動을 포기하고 싶은 絶望상태에 빠지므로 스스로 목숨을 끝내려는 지경에 이른다.

8) 『喜怒哀樂情也, 其未發則性也, 無偏倚故, 謂之中. 發皆中節, 情之正也, 無所乖戾故, 謂之和. 大本者, 天命之性, 天下之理, 皆由此出, 道之體也. 達道者, 循性之謂, 天下古今所共由, 道之用也. 此言性情之德, 以明道不可離之意.』(中庸 第一章 朱子註)

이것이 精神 陰陽이 中道 調和 合德 되지 못 한 逆理現象들로서 이 兩極 사이에는 千層 萬層의 輕·重症心理가 얼마든지 있게 마련이다.

精神이 肉體의 조종사임에 틀림없다면 善行者가 될 것인가 惡行者가 될 것인가의 두 갈래 길에서 善行者가 되고자 한다면 極端에 치우치지 말고 精神 陰陽의 調和 合德 修養이 최우선임을 確信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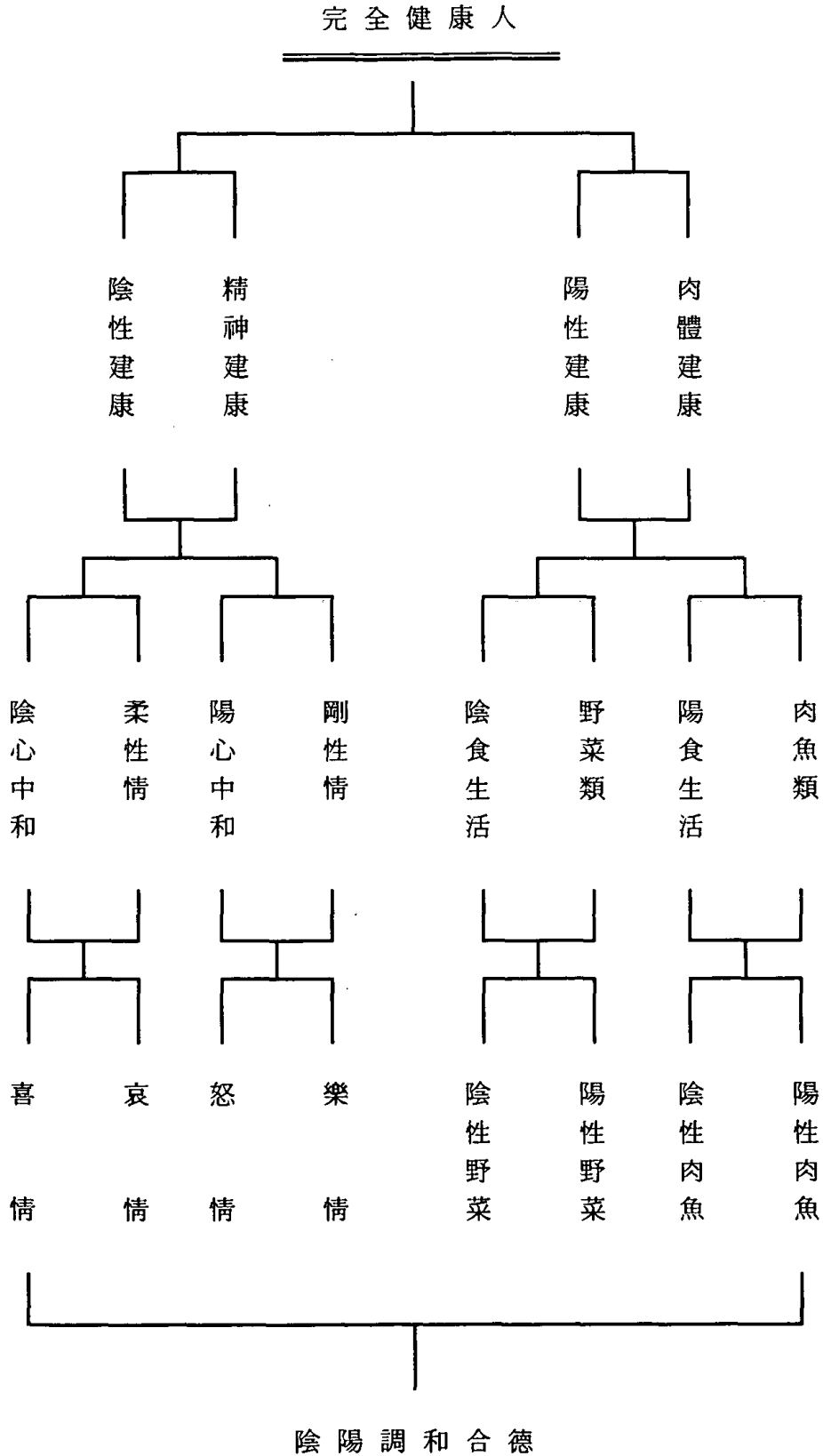
人體의 健康管理 문제를 陰陽合德의 原理로 살펴보면 專門醫學者가 못 되어 깊이 言及할 자격이 없으나, 食生活와 앞서 밝힌 精神生理 그리고 肉體 運動 등에 있어서 陰陽의 調和를 염두에 두고 中道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豫防醫學의 핵심이 거기에 있겠고, 그래서 각종 질병의 침입을 완벽하게 막아내어 天壽를 다 할 것이며 질병 치료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食生活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크게 草食과 肉食生活도 陰食과 陽食으로 분류할 수 있다. 草食動物은 성질이 溫順하고 柔한 것으로 보아 陰食動物이라 할 수 있고, 肉食動物은 성질이 사납고 剛하여 陽食動物이라 해서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人生은 草食과 肉魚食을 並用하기 때문에 人性은 剛柔가 겸할 수 있는 食生活을 하며, 人體의 健康도 陰陽食의 調和로 長壽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肉魚食이나 菜食 어느 한 쪽으로 偏食하면 肥滿症이나 營養失調症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專門的인 食品營養學的 측면에서 관찰하면 肉魚類에도 陰性 肉魚種과 陽性 肉魚種이 있겠고, 野菜類에도 陰性 野菜와 陽性 野菜가 있을 것이니, 우리가 모두 식품 영양학적 전문 지식이 없을 바에는 肉魚類와 野菜類를 골고루 폭 넓게 섭취하는 것이 健康의 제1 처방이라고 한다. 최근 西洋醫學界의 발표에 따르면 不治病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食生活이 큰 몫을 하는바, 알칼리性(鹽基性)식품과 酸性食品 一名 陰陽 食品을 조화 있게 섭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健全한 精神과 健全한 肉體가 합치되어야 완벽한 心身健康人이 되며 이것이 心이라는 陰과 肉體라는 陽의 균형 있는 配合에 있고, 心과 體의 각 健康 또한 心의 陰과 陽 그리고 體의 陰과 陽이 相和되는데 있음을 밝혀 왔다.

지금까지 論述한 健康陰陽論의 要旨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자랑스런 우리 韓國人에 의해서 創出된 陰陽哲學的 醫學인 四象醫學을 看過할 수 없다. 주지하다 싶히 四象醫學은 朝鮮朝 後期 咸南 咸興에서 태어난 東武 李濟馬(1837~1900) 선생이 개발한 새로운 東洋醫學으로서 一名 儒醫學이라 불리울만큼 孟子의 四端 擴充論과 陰陽 易學, 朱子의 性理學的 토대 위에서 醫學이 구성되었다. 그 要旨는 人生이 肉體를 가지고 태어날 때는 完全무결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四類型으로 분류되는바 太陽人 太陰人 小陽人 小陰人이 그것이다. 비록 男과 女로 兩分되지만 男女 모두 太陽 太陰 小陽 小陰 中 한 유형에 속하여, 같은 病을 앓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四象 중 어느 象에 속하느냐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여 病을 中和 치료하는 醫學이다.⁹⁾

陰陽易學이 보이지 않는 宇宙와 人生의 裏面原理를 論한다는 점에서 東洋의 形而上學이라 할는지 모르나 自然科學分野에 속하는 醫學으로 활용하여 그 實效를 크게 거두고 있다는 物証으로 陰陽哲學은 形而上學的 形而下學이며 實証科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陰陽合德의 哲學的 科學的 宗教的 眞理의 一貫性을 증명하는데 一助가 되리라 믿고 詳說을 줄인다.

緒論이 한 篇의 論文 분량만큼 지면을 차지하게 된 까닭은 緒論 自體가 序論과 달리 일반 著書나 論文의 順序上 먼저 집필 동기와 방법,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는 序論이 아니라 陰陽合德 特輯號에 게재하는 논문인 만큼 陰陽에 관한 독립된 학문적 견해를 개괄적으로 피력하는 總論으로서의 성격의 글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緒論을 끝낸다.

9) 李濟馬 著 : 「東醫壽世保元」 參照

本 論

이 글의 主題는 「理想的 人間性 形成 위한 陰陽合德論」이므로 먼저 ‘陰陽’에 관한 總論을 緒論에서 밝히고 어떻게 해야 우리 人間됨의 本質이라 할 個個人들의 品性を 陰陽調和의 原理로 개선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먼저 人間性 形成의 先天的 조건을 알아보고 다음 이미 先天的으로 타고난 人性을 後天的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를 풀어 가기로 한다.

人類의 歷史는 過去事라는 측면에서는 決定되어 버린 불변의 史實이지만 未來事를 관망할 때 決定되어 있지 않은 不確定的 多樣事들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多變的 可能態들이다.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의 決定權은 現在를 살아가고 있는 人生들의 선택의 自由에 속해 있다. 결정이 끝난 過去事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前까지는 未來事로 流動的이었던 것을 過去人들의 선택의 自由가 결정한 일들이어서 現在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책임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不動事가 되어 버린 것이다.

잘못 된 과거사는 過去人들의 잘못된 心性에 의한 決定權 誤用의 所致요, 좋은 業績은 훌륭한 先人들의 善意志의 선택의 決行인 것이다.

이것을 歷史의 教훈이라 하고 現代人들은 過去事에 대한 是非 善惡을 明鑑으로 삼아, 非와 惡을 줄이고 是와 善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택의 自由를 善用할 心性의 改善문제로 歸結된다. 우리가 人性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惡人보다 善人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고 크게는 옳고 바른 歷史를 창조하여 後孫들에게 위대한 文化遺産을 전해 주어 자랑스런 先祖의 몫을 하기 위해서 이다.

그 間 人性문제를 말하면 일부 哲學者나 倫理學者들의 細部專攻分野에 관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實은 人間마다 惡漢이나 聖人이나의 문제요 地球村을 地獄으로 만드냐 天國 이상으로 개조하느냐의 문제가 곧 여기에 있기에 全人類의 最大의 숙제라 하겠다.

I. 先天的 人性 形成論

1. 古典的 先天 人性觀

人性에 관한 연구는 古來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西洋보다는 東洋哲學者들이 深度 깊게 연구하였다. 西洋에서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이는 人間의 先天的 理性을 굳게 믿고 그 命法에 따라 실천할 때 善行이 된다고 본 점은 性善說에 해당되겠고 예수敎의 原罪說이나 토마스 홉프스(T. Hobbes, 1588~1679) 같은 사람의 萬人萬敵說은 그 바탕에 先天的 性惡說이 전제되어 있다. 近世 西洋哲學의 集大成者라 일컬어지는 칸트(Kant 1724~1804) 까지도 人間의 生來的 善意志를 굳게 믿었지만 한결같이 理性이나 良心에 대한 論理的 實証的 理論體系化에는 큰 관심과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東洋哲學에서는 孟子的 性善說을 위시하여 告子の 性無善無不善說, 荀子の 性惡說은 古代哲學界에 격렬한 論爭을 일으켜 人生의 哲學的 연구에 큰 功을 세웠으며, 中世에 들어와 董仲舒(BC 176~ BC 104)의 性未善論, 楊雄(BC 53~AD 18)의 性善惡混論, 韓愈(AD 768~824)의 性三品說, 荀悅(AD 148~209)의 性九品說, 近世에 와서 朱子の 性至善說, 王陽明의 良知 良能說 등은 대표적 人性論이며 나름대로 所信에 대한 論理的 이론 전개가 뚜렷했다. 이들의 人性學說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자면 한 편의 論文은 커녕 한 권의 책으로도 만족스럽게 다루었다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내용들이어서 各論的 해설은 생략하고 공통된 基調理論만 言及하기로 한다.

性善說을 주장하는 학파의 形而上學的 근거는 宇宙에 불변의 理法이 있는 것처럼 그 原理로 태어난 人生에게 그 法則이 예외로 없다고 하겠는가? 끝없는 生成法則은 살리고자 하는 生의 善意志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 經驗論的으로 보아도 孟자의 四端論에서와 같이 측은한 마음,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是非를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 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러한 道德本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仁·義·禮·智라고 하는 四大 道德性的 端緒가 生理本能처럼 구비되었다는 증거라고 한다.¹⁰⁾

性惡說이나 性善惡混有說등의 공통된 입장은 形而上學的 宇宙의 法則이나

人間만의 特有하는 道德本能 따위를 인정하지 않고 人生도 타동물과 구별할 것 없이 肉體的 本能을 共有하므로 각자 그 本能을 충족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치열하게 벌리게 될 것이요, 그 결과는 惡戰苦鬪가 필연적일 것이니 어찌 人生만을 善하다고 하겠는가? 本能 動機에서부터 結果까지 惡함이 명백하다고 한다.¹¹⁾

특별히 性無善無不善說을 주장하는 告子の 立場은 生物學的 人性觀을 취하여 모든 生命體는 살고자 하는 食慾 性慾 本能대로 살아가는 것을 人間만의 독자적인 價値觀으로 善이다 惡이다 결정 지우는 것은 萬物이 人間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착각이며 事物을 事物의 立場에서 公正하게 보면 善도 惡도 없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버드나무의 버들가지가 느러진 것이 人間들의 바구니와 버들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자라난 것이 아니려니와, 東쪽으로 혹은 西쪽으로 흐르는 시냇물이 목적이 있어 東쪽 西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려는 물의 속성 즉 水性때문이라는 것이다.¹²⁾

現代에 와서 이러한 古典的 人性觀을 평가할 때 性善說은 肯定的 人間觀이라면 性惡說은 否定的 人間觀에 틀림없고 中道の 善惡混有說이나 無善無不善說은 生物學的 人間觀이라 하겠다.

이상 三派의 人性觀을 재평가하면 肯定派는 否定派의 견해가 간과되었고, 否定派는 肯定派의 견해가 간과되었다는 사실이요. 中道派는 肯定 否定 兩派를 다 수용한 것 같으면서 실은 兩派를 모두 배제하여 人性에 대한 뚜렷한 所信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學說 토론의 場에서 뿐 아니라 大衆들의 意思 토론 때에도 極과 極의 對立의 激論 속에서 折衷說이 最善의 처방같으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즉 眞도 僞도 아닌 眞僞의 混合이어서 混論 混說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學問은 眞理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인 이상 이러한 折衷的 混說은 배제되어야 하고 次元 높은 統一論的 眞을 創出하는 것이 學者의 責任이며 義務이다. 이러한 眞理 창조론에서 보면 肯定이나 否定 쪽에 眞의 단서가 內在하였다면 兩

10) 原文 생략. 孟子 : 公孫丑·上 參照

11) 原文 생략. 荀子 : 性惡篇 參照

12) 孟子 : 告子·上 「杞柳之辯」, 「湍水之辯」 參照

面 중 하나를 선택해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平面的 眞僞 混合에 좌절하는 것 보다 낫다.

古典의 人性說은 모두 「人間은 善하다」, 「惡하다」, 「善도 惡도 없다」, 「善도 惡도 같이 있다」, 「人間은 上·中·下 三品 中 어느 한 品으로 태어난다」, 「三品을 각 三分한 九品 中 어느 한 品으로 태어난다」는 견해가 한결 같이 先天的으로 人性은 결정되어 태어난다는 점에서 공통되었다.

2. 遺傳的 人性觀

이미 四象醫學에서 人生은 태어날 때 太陽 太陰 小陽 小陰 象中 어느 한 象으로 태어난다 했고, 西洋 醫學에서도 血液型으로 人體와 그에 따른 人性을 구별하기를 A형 B형 AB형 O형 中 어느 한 型에 속한다 하고(여기에 한 두 특수한 희귀 혈액형이 있기는 하다) 輸血時 同型을 요구하는 것처럼, 人性도 出生時 父와 母系의 遺傳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人性의 遺傳科學的 연구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 계통의 學說이나 서적을 筆者로서는 들어보지도 入手하지도 못 하였으나 앞으로 人性문제에 대한 精密科學的 연구가 진전된다면 이 分野는 새로운 영역으로 展望이 밝다.

人類의 肉體는 四類型 또는 하나 둘의 특수 체질로 분류될는지 모르나 精神 類型 즉 人性의 類型은 결코 善·惡이라는 두 價値觀으로 나누어질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肉體는 有限하되 精神世界는 無限하기 때문이다. 이미 孟子는 이 점에 관해서 「小體」와 「大體」를 말했고 小體를 쫓는 者 「小人」이요 大體를 쫓는 者 「大人」이라 하였다.

『公都子가 묻기를 사람은 모두 같은데 어떤 사람은 大人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小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孟子 말씀에 大體를 따르면 大人이 되고 小體를 따르면 小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묻기를 어떤 사람은 大體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小體를 따른다 하

니 왜 그렇게 됩니까?

孟子 말씀에 小體는 귀와 눈과 같은 감각 기관으로서 생각할 능력이 없이 對象인 물질에 가리워 지배를 받고, 물질과 물질이 마주치는 대로 그에 끌려 들어간다.

그러나 大體인 사유(思惟) 기관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생각하면 얻어지고 생각지 않으면 얻지를 못한다.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바이니 먼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유 기관에 자리하면 感性機官이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感性에 지배받지 않고 自主적으로 정신세계를 확대하여 가는 사람을 大人이라 한다.』¹³⁾

孟子는 心理作用을 두 가지로 구별하여 하나는 感性知覺 다음은 思惟作用으로 보았다. 감성지각기관은 「耳目之官」이라 하고, 사유작용기관은 「心之官」이라고 한다. 「耳目之官」은 감각에 그칠 뿐이므로 「不思」하고, 「心之官」은 사유하기 때문에 「思」한다고 한다. 「不思」하는 耳目之官은 肉體的 감각 기관을 통틀어 대표로 지칭한 것이며 이것은 그때마다 접촉하는 물질을 感知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小體」라 이르고, 「思」하는 心之官은 사유하는 精神作用 일체를 말한 것이며 사유능력을 自主적으로 발휘하는 力量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으므로 「大體」라 한다. 大體인 心이나 小體인 감성 기관은 다같이 天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지만, 小體는 禽獸도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가진 것만으로는 人間된 特權이라 할 수 없다. 人間으로서의 存在價値는 大體를 활동하여 精神世界를 얼마나 확대하여 가는가에 달려 있다. 肉體는 일정 기간 성장하면 그치지만 精神活動은 생명이 있는 날까지 가능하며 有限한 人生으로 소망껏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정신활동에 있음을 깨우친 교훈이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小體의 요구에만 盲從하고 大體의 요구는 따르려 하지 않는 계층이 많은가 하면 大體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小體의 요구를 억제하는 禁慾主義를 택하여 高尚한 人格者然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날까지 「小人輩」와 「大人」의 호칭으로 人間을 분류 평가하는 관례는

13) 『公都子問曰鈞是人也，或爲大人，或爲小人 何也。孟子曰從其大體爲大人，從其小體爲小人。曰鈞是人也，或從其大體，或從小體，何也。曰耳目之官 不思而蔽於物，物交物則引之而已矣。心之官則思，思則得之，不思則不得也。此天之所與我也，先立乎其大者 則小者不能奪也，此爲大人而已矣』(孟子：告子，上)

孟자의 이 가르침에서 연유한다고 보며, 動物的 小人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감각이 요구하는 물질적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 것과, 大人되기를 원한다면 感性知覺的 쾌락에 빠지지 말고 遠大한 사려 판단으로 尊敬받을 처세를 계획하고 실천할 것을 일깨운다.

앞으로도 小人과 大人의 人間評價基準論은 길이 유효할 것이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有限한 人生에게 그 제약에서 해방되게 하는 처방이 된다는 점, 人間의 삶을 質的으로 量的으로 擴大 發展할 문호를 열어 주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小人과 大人論을 통해서 人類는 小와 大 사이에 무수한 계층으로 等差지워진다는 것을 알았고, 한 사람도 同等할 수 없는 人生들이 結婚하여 탄생한 子女들은 또 그렇게 異質的 遺傳條件으로 과거에 類例없던 새 계층의 人生으로 태어남을 알게 된다. 머리 터럭 하나도 細胞의 구조 양식이 같은 것이 없다는 科學的 사실로 볼 때 肉體 전체의 세포조직은 億兆蒼生 古今과 未來에 걸쳐 같은 사람이 單 한 名도 없다는 사실이 科學的 解答이라면 그 肉體는 누구의 所産인가?

그것은 한 쌍의 夫婦의 血緣의 結晶體요 父系 母系 血脈의 陰陽 相合이다.

여기 血統이라는 物質的 遺傳條件과 同等하게 精神的 遺傳條件도 決定的 精神遺産이라 보아야 옳을 것이다. 평범한 말로 표현하면 얼굴과 몸 전체가 父母와 그 혈통을 따르듯, 마음 갖음도 父母의 그 유전을 물려받는다라는 말이다.

健康하고 美麗한 肉體로 태어나는 것, 父母로부터 좋은 肉體遺産을 물려받듯, 참되고 착하며 아름다운 마음씨를 물려받는다라는 것도 값지고 高級스런 精神遺産을 상속받는 것이다.

못된 疾病의 因子를 유전한다는 것이 不幸한 유전이라면 惡한 精神因子를 유전하는 父母는 惡한 父母일 수밖에 없다. 肉體의 疾病을 유전하는 것은 모든 父母들이 원하는 바 아니고 本意 아닌 불가피한 유전이라 치더라도 惡한 마음을 유전하는 것은 父母의 改心으로 防止할 수 있음을 道德學을 통하여 배워 실천하려는 努力으로 善心 精神遺傳하는 父母가 되어야 하겠다.

惡한 精神遺傳因子를 상속받고 태어난 사람은 그 만큼 善한 사람 되기에 不利한 條件의 所有者요. 善한 精神遺傳因子를 상속받고 태어난 사람은 그 만큼 善한 사람 되기에 有利한 條件의 所有者가 된다는 遺傳科學的 眞理를 天下의 全父母들은 銘心해야 할 것으로 안다.

善한 精神遺傳因子를 상속한다는 것은 不正한 方法으로 數千億代의 無常한 物質財産을 상속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偉大한 人間됨의 遺産을 물려 주는 것으로, 父母로서 子女 出生 前에 할 수 있는 子女 愛 사랑의 길이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可能한가?

곧 올바른 夫婦生活인 正陰 正陽의 調和 合德으로 이루어지리라 確信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항목을 바꾸어 詳述하기로 한다.

3. 正陰 正陽의 夫婦生活論

宇宙의 구조 원리가 陰과 陽으로 兩分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存在者가 50%만의 存在性을 부여받고 태어나 不備한 50%의 存在性을 他者에게 求하도록 조직되었음을 뜻한다. 만일 100% 완전 獨立者로 존재한다면 他者에게 부족함을 補完받으려는 意타심이나 아쉬움 그리고 상부상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을, 이미 탄생 자체가 50%의 缺格者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부분을 소지한 자를 서로 사모하며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自身の 결함을 보충하려는 構造的 欲求는 宇宙의 攝理이며 이것을 異性間의 사랑이라 하고 이래서 男女間의 사랑은 必然的인 것이다. 만일 男女間에 사랑이 없다면 50%의 불완전 자로서 自足하겠다는 것이며, 그 자에게는 우주의 섭리상 生存者로서의 의욕을 상실한 자로 보아서, 더 이상 血統을 보존할 필요 없다 하여 우주 내에서 영원히 도태시키고 만다. 반대로 50%의 결함을 강력히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왕성하면 정열적 사랑에 넘치는 者라하여 각종 사랑의 藝術을 꽃피우게 한다. 사랑을 꽃피운 자에게 그 보답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로 하여금 자라서 다시 사랑을 꽃피우도록 하여 끝없이 生成을 계승토록 한다. 이 攝理를 크게 보아 宇宙의 아름다움 大藝術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男女의 만남은 人生을 꽃피우게 하므로 아름다운 것이 사실이지만 사랑의 정열이 지나쳐서 조절하지 못한다거나, 혼란에 빠지면 사랑의 悲劇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우주의 섭리를 남용한 罪에 대한 罰이다.

人間이 만물 가운데 가장 貴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우주의 사랑의 섭리를 최대한으로 善用하여 理想的인 生成의 示範을 보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 선택된 인간의 슬기가 一夫一妻制 結婚制度이다.

동물세계에는 암컷은 수컷을 좋아하고 수컷은 암컷을 선별 없이 좋아해서 암컷이 발정하면 그 때마다 만나는 대로 이놈 저놈과 정을 통한다. 여기에서 동물계의 수컷들은 암컷과 정을 통하고도 아버지로서 責任을 질 名分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混淫이며 正陰 正陽일 수 없다. 여기에 아버지로서 父權을 내세울 근거가 없으려니와 「父子有親」과 같은 高級 生命의 倫理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人間의 경우 男女가 陰陽이라는 사실로 서로 사랑할 구조 조건은 갖췄지만 무조건 남자는 여자라고 해서 모두 좋아하지 않고 여자 또한 모든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육체적인 외모 조건과 정신적인 性格조건등 서로 요구조건이 세밀할 뿐 아니라 사회조건으로 가정환경, 경제조건, 지식수준등 너무나 복잡하리만큼 다양해서 이것들을 만족시키자면 慎重을 거듭해야 하니 그것이 正陰 正陽의 調和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다행히 이러한 요구조건에 부합한 배우자가 엄선되었다면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강력한 독점욕구가 발생하여 일평생 伴侶者로 결정하게 됨을 結婚이라 한다. 결혼에 의하여 두 男女는 서로가 소망하고 理想했던 愛人像을 독점하였으므로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正陰 正陽의 結婚이라 하며 이것이 人間 特有的 文化的 性生活이자 사랑의 새 生命이 始發하는 生命愛의 요람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생활에서 비로소 인간 삶의 고귀한 뜻과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사랑의 生命의 물줄기가 새로이 흐르게 된다.

가정이 없는 動·植物界에는 이러한 삶의 높은 뜻과 기쁨과 지속적 사랑을 체험할 리 없고, 순간적 性的 衝動적 欲求充足으로 삶의 밑바닥을 맴돌 따름이다.

필자는 結婚 主禮를 청탁 받을 때마다 主禮辭에서 結婚의 참뜻과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하여 結婚의 정의를 第二의 人間 誕生이요, 부부 관계는 後天的 天倫이며, 優生學的 새 血統의 창조라 하고, 값진 새 人間으로 운명을 개조하여 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結婚이 제2의 人間 탄생인 까닭은 母體로부터 탄생되던 제1의 탄생기는 50%의 人間資格條件밖에 갖추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50%의 必要條件을 갖춘 伴侶를 만나 100% 成人으로 새 출발하므로 제2의 人間 탄생임에 틀림없다고 깨우친다. 東洋의 전통적 관념에 따르면 인생의 운명은 탄생된 生年 月日時가 지배한다고 하나, 그러한 宿命論을 반대하기에는 本人의 연구가 부족하여 異議를 제기할 수 없으나, 結婚論으로 自由運命論·運命改造論을 추가하고 있다. 즉 그토록 出生時間이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제2의 탄생으로서의 結婚 직전까지로 時效가 끝나고 大洋같은 앞날의 운명은 新婚夫婦 두 사람의 結婚日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바, 어떠한 운명이 될 것인가는 부부간의 창조적 인생 설계와 그 실천 노력만큼 소망이 달성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다.

다음 부부 관계가 後天的 天倫인 까닭은, 물론 부부 당사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任意的 相對 關係이지만, 곧 탄생될 二世와 수많은 後孫들에 의하여 새로운 血脈이 영원히 흐르게 될 絕對的 契機가 結婚이고 보면 그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아버지요 어머니요 할아버지요 할머니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後天的 天倫이 되는 것이다.

後天的 天倫의 참뜻은 結婚 전까지 누구를 택할 것인가 任意的 自由였으나, 일단 선택이 끝나고 結婚한 후로부터는 헤어질 自由가 절대로 없음을 警覺시킴에 있다.

이것이 正陰 正陽의 부부 생활인바, 현대에 접어들면서 歐美의 自由主義 풍조에 편승하여 學歷이 높은 계층일수록 서로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 不和가 빈번하고 누적되면, 만나는 것이 自由였던 것처럼 헤어지는 것도 自由라 하여 離婚率이 높아 가고 있다. 이혼은 不正陰 不正陽이 만났다 헤어지는 표본적 사례라 하겠다.

이제 그 원인을 알아본다.

첫째 부부가 각자 맡은 응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맡은 바 영역을 侵越할 때 생기는 충돌 즉 孟子가 말한 「夫婦有別」을 못 지키기 때문이다. 生理的으로 男性은 女性의 기능을 못하고 女性은 男性의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有別) 精神的으로도 男女는 對照的인 것이 正常이어서 有別한데, 그 역할을 서로 못 하거나 혼돈하여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게 言動하면 자기 車線을 지키지 않고 남의 車線에 뛰어드는 차량처럼 충돌은 불가피하다.

둘째 男女가 모든 면에서 異質的이라는 것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否定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부부가 자기 주장만 옳다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여 줄 아량이 없어 對立이 날카로워 진다. 대립이 격화되면 충돌과 투쟁으로 진전되어 헤어짐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異質性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對立이 아닌 待對關係로 발전한다. 앞서 말한바와같이 나의 결격조건을 상대방이 갖췄고 상대방의 결격조건을 내가 갖췄으므로 兩者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에 서로 기다리고 서로 만나야 할 사랑의 同調者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異質者요 有別者인 夫婦는 그 異質 有別條件으로 해서 相乘調和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一家의 幸福이 증진되는 것이다.

이것이 正陰 正陽의 調和요 合德하는 夫婦生活이며 「夫婦有別」의 참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셋째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一時的 기분에 의한 假合의 관계, 動物的 性關係를 독점한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一時的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구속적 결혼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離婚에서 解放感을 찾아 새 性慾 충족 대상의 물색으로 쾌락을 찾으려는 者들에게 이혼은 예사롭게 자행된다.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은 인식 부족으로 해서 結婚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바, 결혼의 보다 큰 뜻은 부부 당사자만의 행복 추구뿐 아니라 現存 부부의 血統 이상의 우수한 次世代를 창조한다는 優生學的 의의가 있다.

植物도 품종을 개량하므로써 優秀品種이 개발되고 가축도 遺傳工學에 힘

입어 생육과 품질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축산물이 증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간도 더욱 우수한 品性의 소유자를 길러 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앞 2절 「遺傳的 人性觀」에서 언급하였거니와 추가 설명하자면 佛敎의 業力說을 응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業力說에 따르면 萬象은 끝없는 輪廻轉生을 거듭하는 바, 변전하게 하는 원인은 業을 쌓기 때문에 결과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이요, 원인으로서의 業은 人生의 경우 언어 행동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 헛되지 않고 원인 형성작용을 하여 語業·行業(이것을 思己業이라 함)·思業을 축적하므로써 그에 상응한 결과로서의 轉生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佛敎라고 하는 宗教의 교리라 치더라도 輪廻轉生이 있고 없고 간에 현대 유전 과학적 측면에서 보아도 인생은 父母의 血統이라고 하는 肉體的 조건만 유전한다고 하면 偏見일 것이며, 精神的 조건도 유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心統」이라는 새 어휘를 쓸 수 있고 이것은 精神遺傳因子인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肉體的 유전은 변화시킬 수 없으나 정신적 유전은 夫婦가 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여 어떻게 行하는가 하는 것이 女子의 卵子和 男子의 精子에게 精神遺傳因子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妊娠 전에 착하고 진실하며 아름답고 성실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여 왔다면 그것이 유전인자가 되어 그 때 受精된 胎兒는 善因子를 유전 받고, 임신 중 어머니가 착하고 좋은 생각으로 성실한 생활을 하였다면 곧 胎敎가 되어 임신기간 좋은 교육을 받고 出産하게 될 것이다.

佛敎는 來世에서 결과를 구하였으나 來世를 믿고 않 믿는 것은 신앙의 自由라 치고, 科學的으로 言語 行動 思惟가 次世代 생산 위한 精神遺傳因子를 형성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진실하고 善良하며 성실한 夫婦生活은 기존의 父母血統 이상으로 우수한 次世代를 창조한다는 論理는 自明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夫婦가 父母에게 孝道하면 그것이 次世代에게 孝心이라는 精神因子를 유전하여 孝子를 생산해서 자기들이 장차 孝道를 받을 예비작업이 되며, 不孝하면 不孝子를 생산하여 子女로부터 禍대받고 不幸한 末路를 자초할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된다. 이것은 道德教育的 訓話가 아니

라 遺傳科學的 歸結이라 할 것이다.

人類의 역사도 그 때마다의 인류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行하였느냐에 따라 발전과 쇠퇴의 길을 선택하였듯, 한 家族의 血統을 우수하게 빛내느냐 저질적으로 타락시키느냐의 갈림길도 그 家族內의 夫婦生活이 正陰 正陽의 合德이나 아니냐로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¹⁴⁾

II. 後天的 人性 形成論

1. 性自由論的 人性觀

I章「先天的 人性形成論」에서는 한 人生이 出生하기 前부터 宇宙의 理法 또는 生의 攝理로 개인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적으로 善·惡, 혹은 無善·無惡, 혹은 善惡混合, 혹은 上·中·下 三品 등을 갖추고 태어났다는 古典哲學的 人性觀과 現代 遺傳科學的 측면에서 개인마다 父母의 血統에 따라 性向 思考方式 등 精神作用도 그 運곡이 결정되어 태어난다는 決定論的 人性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II章의 「後天的 人性 形成論」에서는 人生이 出生한 後에 人性의 可變 여부와 결정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筆者의 研究 結果를 소개하는 것이다.

人間性 또는 人性은 動物과 구별되는 屬性임에 틀림없으나 소에게 牛性, 말에게 馬性처럼 人種的 特性이 있다면 그것은 ‘自由’라는 점에서 「性自由論的 人性觀」이라 칭한다.

왜 人性은 自由인가?

人性은 보편적, 개별적 兩性이 있는바, 생명체로서의 本能과 그 이상의 욕구 그리고 사유 일체를 개괄해서 통칭할 때 보편적 人間性이라 하겠고,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사람마다 특유한 個別的 品性을 個性이라 하겠다.

보편적 人間性을 보더라도 動物의 種의 本能처럼 획일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왕성한 욕구, 풍부한 사유작용과 多感 多情한 감정, 강인한 의지의 소

14) 安鍾沄 著 : 「世界化 時代의 新道德政治哲學研究」, ‘五倫思想의 現代의 省察’, 3. 夫婦의 關係論 354~361面 參照

유자요, 그것은 결코 언어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는 점에서 자유인 것이다. 개별적으로 말하면 基礎本能 이외에 욕구, 사상, 감정, 지능, 의지 모두가 同一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個性의 자유는 엄연한 사실이다.

왜 인간은 타동물들처럼 種의 本能이 확일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人間性이 풍부하며 사람마다 個性이 千差萬別 高低의 정도가 무한한가?

그것은 인간의 腦細胞조직이 타동물들보다 정밀하여 욕구 사상 감정 지능 의지작용이 왕성한 것이며, 개인의 차이 또한 뇌세포조직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 인간의 數만큼 계급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人性의 자유는 生物學的 자유를 말하며, 생물학적 자유는 腦細胞 조직과 기능의 差異를 말한다.

인간은 이처럼 타동물에 비하여 뇌기능이 정밀하고 발달되어 生命體 共有의 기초본능 욕구 충족 以上 능력에 따라 知的 情的 意的 활동이 무한히 전개됨을 일괄해서 ‘欲求의 자유’라 칭하기로 한다.

타동물이 아무리 長久한 세월이 경과하여도 그들의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일정한 本能 충족으로 만족하는 동일 階도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本能 이상 限없이 추구하려는 欲求의 자유 때문에 지능이 발달하고 발달된 지능을 활용하여 개발한 결과를 文化라 하며 그 과정의 시간을 歷史라 한다. 이 때문에 인간은 歷史的 動物이요 文化的 動物이라 자처할 증거가 있다. 따라서 인간 특유의 업적인 文化를 창조할 수 있는 能力은 욕구의 자유인 것이므로 인간은 ‘自由의 動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生物學的으로 구별되는 속성을 ‘自由’라 하는 것이요 인간에게서 자유를 제거하면 그 본질의 상실로 人間圈에서 탈락한 動物이 되고 만다.

실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個性’도 각자의 자유의 양상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 인류로부터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 자유의 存在이며, 그 자유의 能力의 표현이 인류의 文化요 각자 문화의 창조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自由는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는 특유의 ‘能力’이라는 점에서 인간된 ‘偉力’이라 할 수 있고 인간을 ‘偉大한’ 存在, 萬物의 靈長이라 자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偉大한’ 이라는 형용사는 價値修飾詞이므로, 인간의 자유라는 능력이 무엇을 창조해야 價値를 인정받는 수식사로 形容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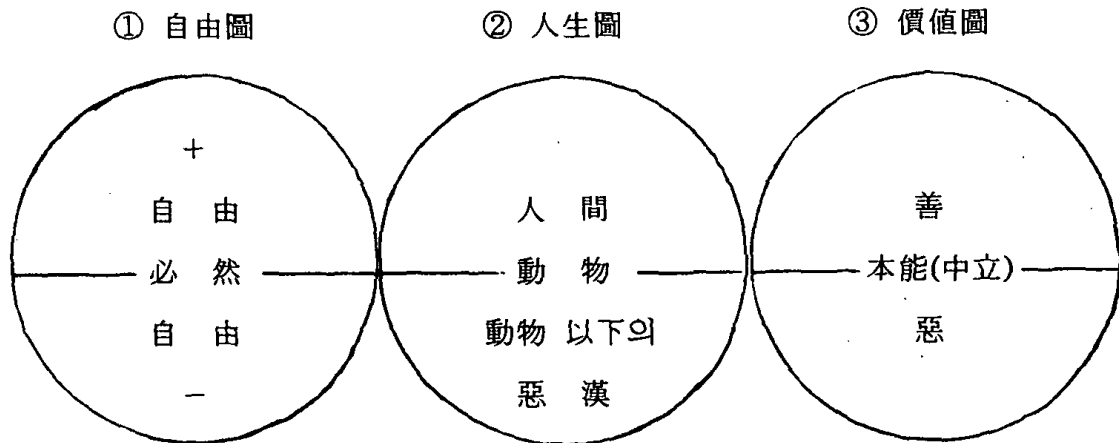
이제 自由의 正體를 알아야 할 단계에 왔다.

自由가 전폭적으로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면 全人類는 天使와 같이 선량할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天國으로 직결된 과정을 걸어 왔어야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볼 수 있는가?

人類를 天使로 보기에 는 너무나 큰 罪惡을 犯하여 우리를 실망시키고, 인류의 역사는 공공연히 투쟁의 과정이라 할만큼 파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오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도 인간의 自由는 첫째 구조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이러한 自由를 속성으로 하는 人間存在는 生物學的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해야 하겠으며, 셋째 動物科에 속해 있는 인간이 自由를 어떻게 해야 만물의 영장으로 最貴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價値觀의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문제를 圖表로 解明하기로 한다.



① 自由圖

하나의 圓 전체를 自由의 면적이라 보고 圓의 半分 직경선을 0, 0이상을 +自由, 0이하를 -自由라 칭한다.

+自由는 增加의 자유, 肯定的 자유, 積極的 자유, 發展的 자유, 建設的 자유, 創造的 자유를 의미한다.

-自由는 減少의 자유, 否定的 자유, 消極的 자유, 退步的 자유, 타락의 자유, 파괴의 자유가 이에 속한다.

0線은 $+ - = 0$ 의 원리에 따라 '零'이므로, '零'은 'Zero' 즉 '無'를 뜻하고 곧 '無自由'가 되어, 이것은 自然 必然의 法則에 지배됨을 말한다.

앞서 필자는 인간은 自由의 存在로 파악하였다고 한 바, 自由人이란 바로 자유의 구조 분석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가 共有하는 自然 필연의 법칙에 지배받으면서 自然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적·물질적 欲求를 고도로 발달한 지능과 사유작용으로 끝없이 충족시켜 갈 수 있는 위대한 창조적 자유가 있는 반면, 自然의 섭리로도 상상 못할 무서운 파괴와 추악한 자유의 능력까지 보유하였음을 알게 된다.

0線(自然狀態의 人生)에서 上·下 어디를 택할 것인가? 그것까지 선택할 自由權을 장악한 自由人이 人生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찬미할 수 있는 것도 실은 +自由의 영역만을 이룸이요, 인간을 추악하고 악독하다고 저주할 수 있는 근거도 -自由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느 한편만 가지고 인간 전체를 찬미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편견이요 人生에 대한 연구 부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自由人이란 창조와 파괴를 동등하게 行할 수 있는 가능성의 소유자임을 말한다. 必然人이란 동물 공통 속성인 本能的 욕구에만 지배되고 만족하는 人生을 이룸이다.

② 人生圖

人生은 + · - 자유의 선택에 따라 上下 계급이 있게 마련이라면, 正常的 人間, 그리고 自然人的 위치는 어디이며 人間이라 불러 줄 수 없는 人生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여 본 도표이다.

②의 人生圖表로 보면 圓의 면적 전체를 人生이라 보고, 人生 속에는 정상적 人間과 동물적 人生과 동물 이하의 惡漢으로 三等分되었으나, 그 數(면적의 비율)는 세 영역에 대한 각자의 선택의 자유에 따라 일정치 않다.

物質所有의 계급화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에 따라 파생한다고 하여 外在的 조건에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本質的 계급화는 자신의 자유가 선택한 自業自得이다.

動物的 本能에만 지배되는 數와 동물만도 못한 醜惡漢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正常的 人間들의 수는 감소할 것이고, 반대로 동물 이상의 人間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동물 이하의 악한들의 수는 극소화될 것이다.

②의 도표는 이처럼 인류사회가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된다는 뜻을 표시하였지만, 다시 압축하면 한 人生의 내면세계도 세 가지 가능성을 공유하였다는 生物學的 人生觀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는 곧 性三品性說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하겠으나, 明白히 다른 점은 性三品說의 경우 決定論的 人性觀으로서 性自由論的 人性觀과 본질적으로 相反된다. 즉 性三品說은 上品과 下品은 불변하는 人性이고 中品만이 可變的 自由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性自由論的 입장은 어느 누구도 他人을 계급적으로 品位를 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本人 자신도 자기를 어느 品位에 고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流動狀態임을 자각하는 것이 정확한 自己發見이며, 그 위치가 새로운 자신을 창조할 契機點임을 경각 시키는 人生觀이다.

性三品說의 始祖는 孔子이며 孔子 역시 『上智與下愚不移』라하여 生來的으로 上位級 智者와 下位級 愚昧人은 後天的으로 變動시킬 수 없어 上智는 上智대로 下愚는 下愚대로 삶을 끝낸다고 하였다. 教育으로 改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오직 中品 人生 뿐이라는 입장이다.

③ 價値圖

生物學的으로 動物的 人生이 어떻게 善과 惡을 判定하는 價値觀이 성립될 수 있는가를 도표로 설명한 것이다.

①과 ②의 도표에서와 같이 0의 正常線은 自然·必然의 法則에 지배되는 動物圈이라 본다면 人生 또한 생명체로서 肉體的 구조조건을 떠나서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모든 동물이 필수적으로 共有하는 生의 기본적 本能線이다.

이러한 本能的 生存에 관해서는 善과 惡으로 평가할 수 없는 價値中立的 境界圈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食慾 性慾이라는 기초 本능은 生命體의 성장 활동과 生의 연장을 위한 生存法則인 것을, 만일 ‘醜하다’ 혹은 ‘惡하다’고 한다면 그 價値觀은 생명체가 生命原理를 모독하고 부정하는 自己矛盾을 범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食生活 性生活을 크게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賤하게 보는 禁慾主義者를 고상하다고 찬미할 수 없으며 食·性生活을 철저히 禁止하면 生命活動을 끝내는 自然의 生成攝理의 배반자·포기자가 되어 生成界에서 自然淘汰되고 만다. 本能은 이처럼 모든 生命體가 필연적으로 지켜야 할 法則이기 때문에 善·惡 價値觀 未分의 中立的 경계권이다. 本能 이상이 (圓의 직경선 以上) 善이 되는 까닭은 一身의 本能的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인류사회 전반에 걸쳐 보탬(+自由로)이 되는 言行과 美德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을 和樂하게 하고 혜택을 베풀기 때문에 그것이 곧 善인 것이다.

다음 本能 이하가 (圓의 직경선 이하) 惡이 되는 까닭은 고도로 발달한 知能을 자기 一身만을 위하여 과도하게 남용하여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걸쳐 과급되고, 남을 훔칠 망정 보탬이 되지 않는 행동은 惡일 수밖에 없다.

①의 自由圖에서 본 바와 같이 ‘一自由’를, 발달한 知能과 왕성한 欲求로 끝없이 확대 충족시킬 때 생기는 행위들이 惡으로 結果한다.¹⁵⁾

이제 性自由論의 人性觀의 요지를 정리한다. 人生이 動物科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는 타동물들과 同等하다는 전제 아래, 발달된 知能과 欲求를 上向 발휘하는가(+自由) 下向 발휘하는가(-自由) 各者의 自由에 속하며, 上向者만이 人間이요, 下向者는 動物 이하의 惡漢이며, 上向하는 행위를 善이라 하고 下向하는 행위를 惡이라 하였다.

人生 各者 「내가 存在한다」는 것은 ‘我’가 ‘非我’의 세계에 對立되었다는 것으로, 크게 보아 主體인 ‘나’를 陽이라 한다면 對象 일체를 陰이라 할 수 있고, 我와 非我의 對立을 相兇 투쟁의 대상으로 보느냐 相生 待對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善과 惡으로 分割된다.

我와 非我, 陰과 陽이 調和할 때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和愛 넘치는 樂園이 되고, 相兇 투쟁을 일삼으면 人類의 歷史는 亂鬪史요 그 앞날은 悲劇的 終末이 기다리는 바, 그 선택의 自由는 우리 人生의 鍵이라는 人生觀이자 人性觀이 性自由論이다.

2. 父性愛 母性愛의 調和的 人性論

本 2절은 筆者의 博士學位論文 가운데 孟子의 「五倫思想의 現代的 省察」이라는 小項目의 첫 머리글 「父子有親」을 현대적으로 再構成한 것이다.

人生으로 생존한 者는 父母없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宇宙 生成 불변의 원리이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탄생시킨 生命이 因果關係가 父母子女관계이고 보면 사람을 ‘人間’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 또한 바로 父母子間의 人倫的 自覺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父·母라고 하는 두 사람(人) 사이(間)에서 ‘내’가 태어났음을 깨닫고, 사람들은 각자 ‘나는 人間이다」라 스스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독 사람만이 同類社會內 存在인 것이 아니요, 萬生命 모두 그

15) 安鍾沄 著 「生活人的 倫理學」 형설출판사 刊 제2장 人間論, 3절 人間存在의 人性論的 考察, 62~103面 參照

원리를 벗어날 수 없건만, 下等生命體와 高等動物로서의 人間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생명의 因果的 存在方式을 自覺하고 있느냐 없느냐 에서 비롯하며, 나아가 人間의 경우 더욱 高次的 존재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그 귀중한 生命의 本源에 대한 恩惠와 報恩을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父子之間의 관계 자각은 動物로서의 사람이 人間됨의 최초의 自覺이다.

그 최초의 그리고 가장 親近한 인간 관계인 父母 子女 사이에 「親함」이 있어야 당연한 事理요, 없다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사회에서 소원한 他人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화목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만일 父子之間에 불친절하면서, 소원한 타인들과 和親하다면 그것은 僞善者들의 一時的 이해관계에서 오는 아첨이거나, 변덕일 것이니, 결코 장구할 리 없고 不遠間 그 변덕은 또 변질되어 怨恨을 남기고 헤어질 것이다.

가장 친근한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親해야 할 덕목을 '孝'라 명명하고 「孝는 衆善之初」라 하거니와 최초의 善인 孝를 이행치 않는 者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지킬 확률은 극히 희박할 것이다. 있다면 우연이요, 요행이며 그러한 우연이나 요행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父母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그것의 확대로서 兄弟나 이웃들 그 外의 對人관계에 있어서도 和親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어디를 가나 환대 받을 善隣社會의 주역이 될 것이다. 「父子有親」을 한 걸음 파고 들어가서 생각하면 「母子有親」이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왜 孟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의문을 제기하여 본다.

그것은 母系社會가 아닌 父系社會에서 父親이 母親까지 대표하여 함축적으로 언급된 것이라 이해한다면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父子有親」을 生物學的 측면에서 조명한다면 人類를 제외한 다른 생명체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는가?

下等動物로 내려갈수록 父의 존재 가치는 미약해지고, 母體가 體內 體外에서 新生命의 보육을 거의 전담한다. 특히 동물계에서는 일부 鳥類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수컷이 受精作用만 책임질 뿐 受胎期間 암컷을 돌본다거나 出産 后 일체 보육에 관여치 않는다. 암컷 독자적인 힘으로 새

생명들이 자력으로 생존이 가능할 때까지 책임지고 보육한다.

따라서 「母子有親」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植物界에서도 母體는 새로운 씨앗을 창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꽃은 향기를 발산하여 벌과 나비를 유인해서 受精하고, 온갖 생명력을 다하여 씨앗을 키워 여물게 한다. 비록 말이 없는 식물이라 하여도, 새 생명인 씨앗에 바치는 母體의 희생적인 保育作用은 인간의 「母子有親」의 ‘親’ 字로 표현하기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또한 下等動物이라 하더라도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생명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고 사랑한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영아를 유기 하는 非情한 女人들은 植物이나 下等動物만도 못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된다.

인간이 倫理와 道德을 지키므로써 만물의 영장일 수 있다면 그 倫理 道德의 근원은 「父子有親」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어린이가 數를 공부하자면 「하나 둘 셋…」을 익혀 가듯, 人間으로서의 成長도, 육체와 함께 一寸의父子관계 二寸의 兄弟관계 三寸의 叔姪관계를 자각적으로 이행하므로써 人間化되어 간다.

소나 말, 돼지와 같은 동물계에 數의 觀念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一寸的 自覺, 二寸的 自覺을 실천하는 倫理와 道德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관계에 時間觀念 空間觀念과 함께 數理觀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人間관계에 數理的 파악은 있어야 하고 그것을 「系寸」 또는 「計寸」이라 하며, 그 계층은 科學的으로 倫理的 事實을 확인함이다. 그래서 一이 數의 基本인 것처럼 一寸的 自覺으로서의 父子有親이 倫理의 시작임이 明白한 事理로 立証되었다.

孟子가 왜 「父子有親」 다음에 「母子有親」을 추가하든지 간략하게 「父母子有親」이라 하지 않고 아예 「母」를 빼 버린 의도가 무엇인가 숙고할 필요가 있다.

孟子는 개인적으로 볼 때 父親을 失하고 남달리 母親의 극진한 사랑과 교육열로 大成한 대표적 인물인데도 그 母親보다 父親의 소중함을 깨닫고 人倫의 첫 머리에 꼽은 뜻은,

「父는 父답고,子是 子답게, 子가 父를 섬기는 데서 人間된 첫 資格을 취

특하고 人間된 자에게 비로소 倫理가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動植物의 세계에도 인간 못지 않게 母性愛가 강력하건만, 그것은 一寸의 自覺인 倫理的 自覺에서가 아니라 宇宙의 생성법칙에서 자연 발생하는 種族保存愛에 불과하다. 따라서 人生의 경우도 어머니가 子女에게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것도 人間 특유의 倫理的 사랑이라 할 수 없다.

倫理的 사랑은 父性愛로부터 시작하며 따라서 父와 母의 子女에게 쏟는 사랑은 質的으로 다르다.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生命體 共有의 種族保存本能과 같은 生命愛이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二世를 수태시키고 출생시킨 能動者로서 책임지는 엄숙한 義務感이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잘못이 있다 해도 무조건 용서하고 싶고 감싸주고 싶은 善惡의 價値觀을 떠난 뜨거운 사랑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탄생시킨 자식이 罪惡을 범하여 사회에 피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은 全的으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冷嚴하게 꾸짖는 秋霜같은 義憤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嚴親이라 부르며 어머니를 慈親이라 부르는 것이다.

아버지는 子女의 잘못을 볼 때마다 꾸짖고 말로 타일러 듣지 않으면 매 들기를 거듭하며 그 때마다 어머니는 자기 몸으로 매를 피하게 한다.

아버지의 꾸지람은 언제나 人間共同體속에서 자기 子女를 파악하여, 결함을 지적하고 보충하려는 命令이기에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動物的 사람」을 「人間」으로 育成시키겠다는 第一次의 倫理作業이다. 그러나 아직 人間이 되지 못한 사람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배반하기도 한다. 그 자는 참된 아버지가 되어 보아야 자기 아버지의 과거를 뒤늦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한 가정의 子女教育에 있어서도 父와 母의 대조적인 사랑으로 調和있게 人間性을 길러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陽의 사랑, 剛한 사랑, 차가운 사랑인데 비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陰의 사랑, 柔한 사랑, 뜨거운 사랑인바,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子女의 人性 形成에 缺格(人格 不足現象)을 가져온다.

缺損家庭의 子女가 人性이 고르지 못하고 非情한 犯行을 자행하는 경향이

많다는 통계보고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 사람의 人間性이 부드럽고 따사롭고 內省的이기만 하면 社會생활에 進取性이 없을 것이며, 반대로 억세고 冷情하며 자기 주장만 強行하려 한다면 獨善 獨裁의 性向으로 해서 大衆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배척 당할 것이다.

人間性이 원만하게 形成되기 위해서는 陰으로서의 母性愛와 陽으로서의 父性愛의 剛·柔와 冷·溫, 積極性과 消極性이 효율적으로 調和를 이루어야 할 것이요, 이러한 人性의 소유자에게 高尚한 人格의 함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家族計劃運動이 실효를 거두면서 子女 하나 많아야 들만 낳게 되는 가정에서는 지나치게 애지중지하여 父性愛·母性愛의 구별 없이 무조건 사랑, 맹목적 사랑으로 子女를 過剩 偏愛하다 보면 그 어린이는 장차 성장과 함께 唯我獨尊의 人物이 되어 社會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우려니와 人間 社會에 無益하거나 有害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때 일수록 아버지의 嚴正한 사랑의 訓育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우리 社會에서는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만 거룩한 줄 알았지 아버지의 嚴正한 사랑을 찬미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그만큼 倫理·道德의 근원을 올바로 모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부터 실천하는 풍토 조성 이 덜 되어 있는데 기인되며 직접적으로 父性愛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한 때문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天下의 어머니들의 母性愛는 모두 非倫理的이라고 성급하게 분노하여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머니 혼자 아버지의 몫까지 다하여 자식을 성공시킨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과 같이 母性愛도 自然愛 이상의 人爲性이 있음을 충분히 시인한다. 그 偏母의 사랑 속에는 陰陽의 사랑이 調和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父母의 사랑을 質적으로 분석할 때 陰과 陽, 剛과 柔, 自然發生의 사랑과 人間共同體가 요구하는 人爲愛로 대조됨을 알 수 있다. 父性愛를 특별히 「人爲愛」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反自然的 또는 非自然的이라는 뜻이 아니라 他生命體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人間 特有」를 「人爲」라고 하였다.

倫理와 道德은 오직 人間社會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父性愛도 타동물 이상 특유의 剛한 사랑이다.

모든 男性들에게 父性愛를 경각시킴으로써 「아버지 된 義務를 촉구하며 자신에 의해서 탄생된 子女는 책임지고 自然人으로부터 人間으로 訓育하라」는 뜻뿐이다.

아버지가 아버지 體統을 잃으므로써 不孝子が 생기고 그 不孝子が 커서 더 큰 不孝子를 遺傳하여 人間性은 포악해 갈 수밖에 없다.

父權을 회복하는 것이 쇠퇴 일로의 倫理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父子有親의 敎訓은 動物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高貴한 人間の 次元으로 格上시키는 第一歩이자 실추된 人權을 회복하는 영원한 人間化의 길이라 하겠다.

夫婦가 子女를 出産하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가르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소망이라면 學校같은 公敎育 전에 가정에서 아버지는 陽性 사랑과 어머니는 陰性 사랑을 調和있게 베풀어야 陰陽合德에 의한 理想的 人間性이 形成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物質의 예로 鐵製品 機械類의 경우 쇠가 너무 剛하면 太剛卽折이라고 斷切되기 쉬웁고 너무 柔하면 磨耗가 빨라 얼마 쓰지도 못하고 폐물이 될 것이므로 剛柔가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고장 없이 장구하게 사용될 것이므로 이 또한 物質의 陰陽合德의 원리 응용 與否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子女의 人間敎育에 있어서 학교敎育보다 더 접촉이 많은 아버지의 父性愛와 어머니의 母性愛의 相和 合德이 至大한 역할을 함은 宇宙的 原理의 敎育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夫婦生活이 不和하다거나 父性愛 없는 아버지, 母性愛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어린이는 그 人間性 形成上 不幸한 조건하에 不良하게 길러질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여기 陰陽合德의 敎훈은 夫婦 당사자들만의 幸福의 原理가 아니라, 高次元의 子女를 育成하는 後天的 優生學的 人間改造의 處方이라 할 수 있다.

結 論

머리글에서 人生은 文化를 창조하여 文化生活 수준을 높여가므로써 偉大함이 비례한다 하였고, 文化에는 陰性文化로서의 精神文化와 陽性文化로서의 物質文化가 있어 이것을 調和롭게 병행해야 陰陽合德 高級文化人이 되거늘, 현대 人類文化는 物質에 치우친 半偏文化路線으로 歷史의 正道를 벗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역사의 앞날은 車道를 벗어나 疾走하는 車의 운명과 같다 하겠다.

또한 一國의 百年大計는 教育에 있다고 함이 사실이라면 人類의 歷史 萬年大計를 올바르게 세움도 참된 교육이나 잘못된 교육이나에 따라 左右될 것이다. 참된 교육은 人間의 本質을 갈고 닦아 빛내는 人性 함양 主體교육과 生活手段을 개발하고 풍요롭게 하는 從屬교육이 균형 있게 실시되어야 하거늘, 이것 마저 主體교육을 소외하고 종속교육에 치중하고 있음을 크게 비판했다.

教育에는 私教育으로서의 가정교육과 公教育으로서의 각급 학교교육, 生活 現場에서의 각종 사회교육 가운데 대표적인 宗教生活교육이 있는바, 가정에서는 父母의 지나친 偏愛가 初期 人性을 잘못 유도하는 경향이 많고, 학교교육은 이미 지적한 대로 半偏文化人을 양성하며, 既成宗教는 영원한 眞理를 說法하고 絶對者를 信奉하나 說教대로 믿기에는 의문의 소지가 많고, 主體者 人間이 宗教에 예속화되는 主從이 전도된 人間 卑下의 경향을 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비하여 宇宙가 시작되면서 변치 않을 영원한 生成法則인 陰陽合德을 信條로, 참된 삶의 指針을 제시하는 大巡眞理는 全人類의 平和와 幸福을 보장하는 大 教育的 宗教라 하겠다.

總論格인 緒論에서 巨視世界인 大宇宙와 微視世界인 原子의 構造까지 陰陽의 原理로 구성되었다는 것 易學的 核物理學的 統一을 확인하였다.

宇宙의 大陰陽이 順理로 運行할 때 宇宙 秩序가 바로 잡히며 逆理로 運行할 때 天災地變이 일어나며, 人類가 陰陽을 逆用하여 核分裂을 急速히 加하면 무서운 파괴력을 일으키는 原子爆彈이 생산된다.

이제 人類의 과제는 陰陽二元哲學을 어떻게 善用할 것인가에 관심을 모아 야 할 때가 왔다.

聖인과 같은 最高의 人格者가 되자면 精神修養에서 心性의 陰陽 調和인 中庸之道를 지킴에 있음을 알았고, 肉體의 完벽한 健康 또한 精神의 陰健康과 體力의 陽健康의 配合 즉 合德에 있으며 이것은 心性의 中和와 食生活의 陰陽食 調和에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圖式으로 작성하였다.

各者 一身의 健康과 一家의 幸福, 一國의 繁榮 나아가 人類의 平和까지 陰陽의 原理를 順理的으로 調和하므로써 가능하고, 逆用하므로써 각종 不幸과 地球의 破壞 그리고 宇宙 秩序까지 大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陰陽의 順理的 善用과 逆理的 惡用의 선택권을 장악한 人生들의 善人化作業이 있을 뿐이다.

本論에서는 먼저 先哲들의 古典的 人間性 연구를 참고로 하여 人性의 先天的 決定論을 살피고, 다음 現代적 시각에서 遺傳的 人性形成에 의한 好條件과 不好條件을 明示하여, 正陰 正陽의 올바른 夫婦生活로 좋은 精神遺産인 善한 人性을 물려줄 것을 강조하였다.

人性은 先天的 決定 條件 외에 後天的 可變性이 오히려 人間된 主權이라 보아, 筆者는 ‘性自由論의 人性觀’을 주장하여 善인과 惡人, 聖인과 惡漢됨도 각자 努力의 自由가 선택한 결과라 하였다.

특히 人性形成에서 가장 流動的인 幼年 少年期에 父母의 사랑과 訓育이 크게 影響력을 끼치므로 아버지의 陽性愛와 어머니의 陰性愛가 調和있게 배풀어져야 精神的 剛·柔, 冷·溫, 理性·感性이 원만하게 配合되어 理想的 人間性을 形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 夫婦生活이 子女들 人性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몫을 하는가 생각하면 모범적인 父母가 되기 위해서 正陰 正陽의 夫婦論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잘못된 夫婦生活은 不正陰 不正陽의 만남이라 하겠고 그 결과는 다름 끝에 헤어지지 않을 수 없으니, 것처럼 不幸한 父母 밑에서 자라난 子女는 얼마나 어린 가슴에 충격을 주었으며 離婚 후 結손가정에서 자라나는 동안 또 얼마나 孤獨과 悲哀로 가슴에 恨이 맺힐 것인가?

그래서 筆者는 結婚 主禮辭 마다 夫婦關係를 ‘後天的 天倫’이라 정의하여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任意的 相對關係의 自由로운 男女들이었으나, 일단 결혼 이후부터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二身同體의 絶對關係者라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결혼하여 1년 10년 100년 몇 천년이 지나면 두 몸에서 몇 萬名의 子孫이 생길 것이며 그 子孫들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틀림없으니 夫婦 本人들만 기준하지 말고 먼 未來 子孫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新血脈을 창조한 造物主가 夫婦이므로 絶對 不可分の 後天的 天倫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夫婦는 괴로울 때 서로 위로하고 상부상조하며 즐거울 때 사랑을 倍加하는 平生 삶의 同伴者이므로 하늘 아래 하나뿐인 사랑의 分身이다. 이 들 사이에서 태어난 子女는 사랑의 結實이므로 家族이라고 하는 사랑의 搖籃에서 父母 陰陽의 사랑을 골고루 받으며 자라난다면 萬生命 가운데 이보다 더 高貴하게 心身 成長하는 경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妊娠前 父母의 善良한 精神遺傳因子를 상속받고 妊娠中 사랑의 胎敎와 出産後 父母의 陰陽合德한 사랑 속에 자라난다면 宇宙內에 最貴한 生命이 人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血統과 心統(精神遺傳因子)을 이어받은 人性의 소유자는 千萬 物質財産을 상속받은 者와 類를 달리하는 理想的 高位 人間像이요 萬物의 靈長일 수 있는 基本條件을 갖추어 된다.

이러한 高級 人間 條件을 갖추고 本人 스스로가 봄에 씨앗 뿌려 곡식을 가꾸는 農夫처럼 平生 지속적으로 人性을 陶冶할 때 尊嚴한 人格 高段者가 되는 것이며, 이 높은 人格性은 人間社會內에서만 形成되고 通用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宇宙의 섭리 아래로는 自然의 理法과 同位 人類와 性情을 같이 하는 宇宙와 人生을 一貫하는 統一人格者가 된다.

이것이 모두 太初이래 永遠한 宇宙의 生成法則인 陰陽合德의 眞理를 受容한 大人間의 實像이다.

추가하여 言及할 것은 陰陽合德이 天·地·人 三界를 一貫하는 生成法則이라면 이 原理에 順應하는 者 발전할 것이요, 逆行하는 者 쇠퇴할 것인 만큼 우리 人類生活全般에 걸쳐 이 適用이야말로 삶의 슬기요 필요로운 歷

史 창조와 처방이 될 것이다.

筆者는 職業上 글을 쓰고 敎育하는 신분이고 보니, 우리 語文生活에서 言語와 文字의 陰陽合德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오는바, 現 地球上 人類文化는 역사 이래 창조한 업적을 수록하여 傳承하는 容器요 道具인 文字面에서 볼 때, 東洋은 表意文字 文化圈, 西洋은 表音文字 文化圈이라 불리울만큼 對照的이다.

文字哲學的 측면에서 두 종류의 文字는 각자 長短點이 있으며 쌍방의 長點을 配合하여 사용하는 民族과 國家가 地球村 世界化時代의 새 歷史를 창조하는 先進國이 될 것을 굳게 믿는다. 과거의 實例로는 敗戰國 日本이 현재 最先進國이 된 것도 그들의 國字와 漢字를 混用한 語文政策에 있다고 한다.

이 原理는 兩 文字의 性能을 분석하면 이해가 빨라질 것이다.

『表意文字 = 有意文字 = 表裏文字 = 陰性文字』

『表音文字 = 無意文字 = 表表文字 = 陽性文字』

이기 때문에 西洋의 알파벳트 文化圈이나 韓國의 한글專用主義者들은 陽性文字만을 고집함이고, 中國과 같은 漢字專用圈은 陰性文字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文字로서의 使命을 다 하지 못 하고 思想 感情 表現의 自由와 精神的 創造力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男性만의 集團, 女性만의 集團이 외로이 對立되어 사는 것 보다 男女 和合에서 相補 相生 발전이 가능한 것처럼 語文生活에 있어서도 陰性文字로서의 表意文字와 陽性文字로서의 表音文字를 有効 적절하게 配合하여 사용할 수 있는 韓民族이야 말로 새로운 人類 未來史의 발전을 倍加할 先導國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筆者는 이러한 文字哲學的 所信 때문에 한글 專用을 極力 反對하며 學術 서적이거나 論文을 집필할 때 陰性文字(表意)와 陽性文字(表音)를 적절히 配合하여 文章의 理解와 效率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筆者에게 시간이 허락한다면 “語文生活의 陰陽調和論”이라는 論題로 이 分野의 論文을 後日 발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周易』

『中庸』

『孟子』

『荀子』

大巡眞理會 教務部, 『典經』 大巡眞理會 出版部, 1989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博文書館, 1924

李永在 著 『核發電·放射線·核爆彈』 電波科學社, 1982

安鍾沄 著 『세계화 時代와 新道德政治哲學研究』 學文社, 1996

安鍾沄 著 『民主倫理學要論』 螢雪出版社, 1993